

비닐하우스 폭삭... 凍死... 교통 마비

광주·전남 곳곳 폭설·한파 피해 속출

주말이 겹친 지난 5, 6일 광주·전남 지역에 곳에 따라 20cm 이상의 많은 양의 눈이 내리면서 폭설·한파 피해가 잇따랐다.

7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대설·폭랑·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광주·전남지역에 내린 눈은 영광이 29cm로 가장 많았으며, ▲목포 14.8cm ▲완도 7.8cm ▲광주 5.2cm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광주와 전남지역에 내리던 대설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불면서 당분간 추위는 계속 될 것”이라며 “8일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전 한때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비닐하우스 ‘폭삭’=폭설로 인해 비닐하우스와 인삼밭 그늘막이 등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지난 5일 밤 10시경 영광군 군서면 해송마을의 비닐하우스 6개 동을 비롯한 전남지역 17개 농가 33개 동의 비닐하우스가 주저앉았고, 같은 날 오후 8시경에는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1개 농가의 인삼밭 1.5ha가 폭설로 무너져 내리는 등 1억5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초·중·고등학교 ‘임시 휴교령’= 일부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초·중·고교 휴교도 잇따랐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6일 영광 25개교와 해남 14개교를 비롯해 나주, 함평, 무안, 진도 등 6개 시·군의 48개 초등학교, 13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등 모두 64개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다.

○동사(凍死)·낙상 사고 등 잇따라=폭설과 강추위로 1명이 동사하고

10여명이 낙상사고를 당하는 등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6일 오전 7시경 광주시 북구 운암동에 사는 박모(53)씨가 집 앞 현관 앞에 쓰러져 숨겨 있는 것을 주인(68)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박씨가 저체온증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날 오후 2시30분경 해남군 산이면 당후리 산이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탱크로리(운전자 이모·54)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정차 중인 진도(여·72)씨의 승용차를 들이쳤다. 이 사고로 진씨 등 일가족 4명이 부상

을 입었다. 주택가나 이면 도로가 얼어붙으면 서 낙상사고도 잇따랐다. 지난 6일 오전 9시30분경 광주시 북구 유동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최모(여·74)씨가 빙판길에 넘어져 머리를 다치는 등 낙상사고로 인해 1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교통 ‘두절’=지난 6일 내려진 풍랑주의보로 전남 지역 26개 항로 47척의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으며 광주시 북구 원효사 주변 도로와 구례 천은사 주변도로는 교통이 통제됐다.

진도 항동제와 해남 오소재 및 우슬재 주변 도로의 교통통제는 눈이 녹으면서 해제됐다. 또 같은 날 오전 7시 광주에서 출발하는 김포행 대한항공 여객기가 활주로 제설작업 탓에 30분간 지연 출발했으며 오전 7시 20분 김포행 아시아나 여객기도 25분간 출발이 늦어졌다. 앞서 목포역에서 새마을호 열차가 제동장치 동결로 추경되는 고장으로 1시간가량 출발이 지연돼 승객들의 항의소동이 벌어졌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영광군 군서면 보라리 조모(55)씨의 비닐하우스 10동이 지난 5, 6일 이틀동안 내린 눈으로 인해 구조물이 엇가락처럼 휘어지며 붕괴됐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시설 강화한지 한달만에 무너지다니...”

비닐하우스 농민들 “정부 하란 대로 했는데” 한숨만

“정부가 하란 대로 비닐하우스의 시설을 강화해 한 달 전에 새로 지었는데 이렇게 빨리 무너지길 상상도 못했습니다.”

7일 오전 영광군 군서면 보라리 조모(55)씨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앞에서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5일부터 30cm 가까이 내린 폭설로 인해 한 달 전에 완공된 비닐하우스 10동(3천300㎡)이 폭삭 주저앉았기 때문이다.

내년 봄부터 원예작물을 심기 위해 정부지원금 2천만원과 자부담 3천만원 등 5천만원을 투자해 지은 비닐하우스에서 부농을 꿈꿨던 조씨는 폭설 한번에 모든 꿈을 빼앗기고 말았다. 특히 조씨는 지난 2006년 광주·전남지역에 내렸던 폭설로 수백여 채의 비닐하우스가 붕괴된 이후 정부에서 정해진 규격(파이프 두께 32mm, 파이프간격 70cm)대로 시설했음에도

이렇게 쉽게 무너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많았다. 조씨는 “두께가 예전(25mm)보다 크게 강화된 규격의 파이프를 사용했으며 시설도 전문가들이 만들었다”며 “눈이 많이 내린 날 집안일 때문에 눈을 지우지 못했지만, 최신 비닐하우스가 이 정도의 눈에 붕괴됐다는 것을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폭설 때문에 비닐하우스 2개

동이 무너진 박모(41·영광군 백수읍)도 사정은 비슷하다. 내년 1월부터 고추 등을 심기 위해 조금씩 준비해왔지만 이틀간 내린 눈 때문에 모든 것이 허사가 됐다. 피해액은 500여만원 정도지만 힘들게 지었던 비닐하우스였기에 상실감은 더욱 컸다. 박씨는 “눈이 온다는 예보를 들긴 했지만 이렇게 피해를 입을지는 몰랐다”며 “언제 눈을 다 치우고 시설을 복구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은 이틀간 내린 눈으로 군서면의 비닐하우스 10동 3천300여㎡, 백수면의 하우스 1동 260여㎡ 등 비닐하우스 20동(6천726㎡)이 무너지는 피해를 입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영광=조익성기자 ischo@

사람 잡은 개

나주 초등생, 집에서 기르던 개에 물려 숨져

초등학교생이 집에서 기르던 개에 물려 숨졌다.

7일 나주경찰에 따르면 전남 오후 1시~2시 사이 나주시 동강면 이모(42)씨의 집에서 이씨의 아들(7)이 온몸에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것을 이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점심식사 후 잠깐 낮잠을 잔 뒤 일어나보니 마당에서 혼자 놀고 있던 아들이 개에 물려 피범벅이 된 채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숨진 이군의 다리와 엉덩이, 팔 등에 개 이빨 자국으로 보이는 수심 곳의 깊은 상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군이 사고 당시 마당에서 눈 놀이를 하고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과 이군을 문 것으로 보이는 잠종견의 입가에 피가 묻어 있는 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며,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8일 부검을 할 계획이다.

한편, 숨진 이군의 집에는 이군을 문 잠종견을 비롯한 20마리의 개가 철망 안에 사육되고 있으며, 문제의 개는 철망이 아닌 개 줄에 묶인 채 사육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정철형기자 chung@

나원침 (7672) 김장동



다 좋은 건축·산업자재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제작 및 상담관행

시각장애인, 담배 잘못 팔았다가...

쌍다발

○구멍가게를 하는 70대 시각장애인인 청소년인 줄 모르고 담배를 판매했다가 가게가 문을 닫게 되자 선처를 호소. ○7일 광주시 서구에 따르면 시각장애 4급인 L(여·73)씨는 지난 6월 27일 밤 10시경 중학생에게 담배를 팔다 적발돼 청소년보호법 등 위반혐의로 벌금 20만원과 영업정지 2개월을 받았다.

○L씨는 경찰에서 “왼쪽 눈은 녹내장, 오른쪽 눈은 백내장을 앓고 있다. 담배를 구입하려는 손님이 성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힘들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L씨가 청소년인 줄 알면서 담배를 판매했다는 중학생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L씨의 주장을 일축.

○서구 관계자는 “이씨의 딱한 처지를 감안 영업정지를 1개월로 단축해줬다. 더 이상 도와줄 방법이 없어 고민이다”며 난색.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이천 물류창고 화재’ 용접공 2명 영장

시신 1구 추가 발견

7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를 수사 중인 경기도 이천경찰서는 7일 용접작업 중 부주의로 불을 내 인명피해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용접공 강모(49)씨와 남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실종자 수색작업을 재개해 낮 12시 20분경 이현석(26)씨로 추정되는 시신 1구를 창고 건물 지하층의 건물 잔해 속에서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와 남씨는 지난 5일 낮 12시10분경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서이천물류센터 지하층 냉장실 출입문 전기용접 작업을 하다가 부주

의로 불을 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씨와 남씨가 불티가 튀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고 자체진화하려다 여의치 않자 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유가족들은 7일 합동분향사 마련 등 이천시와 업체 측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족들은 이날 오후 희생자 빈소가 마련된 이천효자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년 새 이천시에서 두번이나 화재참사가 발생했는데도 시와 업체 측은 사고 후 사과나 반성은 커녕 빈소에도 찾아오지 않는 무성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빨리 장례 등을 치를 수 있도록 조속히 성의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연휴뉴스

모텔 몰래 투숙 50대 새벽 편의점 강도

객실서 숨진 채 발견 고교생 3명 검거

지난 6일 낮 12시30분경 광주시 북구 신안동 J모텔 3층 한 객실에서 정모(50)씨가 쓰러져 숨겨 있는 것을 모텔 주인 M(51)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정씨가 전날 추위를 피해 J모텔에 몰래 들어가 투숙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숨진 정씨가 평소 알코올 중독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병원 직원의 진술에 따라 지병 때문에 숨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이종형기자 golee@

광주동부경찰은 7일 흥기를 들고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은 전남 지역 모교고 3학년 김모(19)군 등 3명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은 7일 새벽 3시경 광주시 동구 S편의점에 복면과 모자를 쓰고 침입, 종업원을 흥기로 위협한 뒤 현금 40만원 등 122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7시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안현주기자 ahj@

Large advertisement for '하나투어' (Hana Tour) featuring travel packages,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text like '1등 여행사' and '입도적 1위(45%)'.